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국가예산 9조원 시대 개막 '대장정'

내년 국가예산 확보 본격 시동

전북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등
현재까지 신규 379건 발굴
3월 말까지 보완 반영키로

전북도가 국가예산 9조원 시대 개막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도는 지난 14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북도의 신산업 지도 구축과 생태문명사대로의 도약을 위한 2023년 신규사업 발굴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가예산 확보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전북 발전을 견인할 미래 신성장 동력확보, ▲친환경·융복합화를 통한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경제구조 전환 대응,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안전 개선 및 편의증진, ▲한국판 뉴딜 2.0에 부합하는 전북형 뉴딜사업 추진 등을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중점 발굴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책사업 발굴 T/F와 전북연구원, 시·군과 함께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까지 발굴된 2023~24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은 총 379건(총사업비 9조 6,413억원 규모)으로 융복합 미래신산업,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친환경 스마트공장 구축, 여행체험1번지, 새만금·SOC, 환경·안전·복지 등 전북 발전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융복합 미래신산업 분야로 ▲수소상용차 핵심부품 및 전용플랫폼 고도화 연구센터 구축,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 구축,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등이 있다.



지난 14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고 전라북도의 신산업지도 구축과 미래먹거리 사업 중점 발굴 등 향후 국가예산 확보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있다.

산림농정농생명 분야로 ▲국제종자 박람회장 구축, ▲농축산용미생물 아파트형 스마트공장 구축, 여행체험1번지 분야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등이 있다.

또한, 도는 새만금·SOC분야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구시포 국가어항 준설토 투기장 건설, ▲전북 권 국립해양문화사설 건립 등이 있으며, 환경·안전·복지 분야로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 ▲한국 탄소중립지원 체험교육원 건립, ▲전북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국립 희귀질환센터 건립 등을 발굴했다.

전북도는 국가예산 9조원 시대 개막을 목표로 도와 시·군 전방위와 함께 의미 있는 신규사업을 지속·추가 발굴하는 한편, 이번에 발굴된 신규사

업들은 부처 실링 배정 이전인 3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해 부처 예산안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는 3월 대선 이후, 국정기조 변화에 따른 중앙부처 주요사업의 구조조정과 예산편성 기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5월 부처예산안 기재부 제출 이전까지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 또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자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예산확보에 광복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내어 목표를 달성하는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자세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의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거리두기 강화 3주 연장

다중이용시설 시간제한 유지하되 사적모임 6인까지
송하진 도지사 "설 연휴 고향·친지방문 자제해달라"
비대면 안부 전하기·온라인 성묘 서비스 이용 당부

정부는 16일 종료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민생경제 여파를 고려해 사적모임 기준을 전국 4인 가능에서 현 집중여부 상관없이 전국 6인까지로 완화했다.

전북도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방역패스 등에 대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최근 일일 확진자가 100명 선을 넘어가고 오미크론 점유 비율도 확대되고 있어 이를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업체·목욕탕·체육시설 모임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해 나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 명절 대비 서울 및 전국 항우회 시·군 항우들에게 고향 방문 자제 요청 및 온라인 차례상 차리기를 홍보하고, 부득이 방문 시 방역수칙 준수를 반드시 해줄 것을 요청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역·타기널 주요관광지 등에서 발열체크, 거리두기 준수 운동을 강화하며, 선별 검사소를 최

대한 확대하고,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방역패스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시설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설 명절 기간에는 실내 추모관 폐쇄 조치, 공공시설 최소한의 인원 운영 조치 등을 시행해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기할 계획이다.

더불어, 오미크론 대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생활치료센터 확충, 재택치료 시 동반자 안심숙소 확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도입 등 도민참여형 방역 방안을 실행해 나간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민들의 희생과 이해에 무한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여행사, 문화예술인, 전세버스·택시 기사분들께 민생회복지원금을 마련하는 등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개발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항우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생각하고, 설 연휴기간 고향 방문 자제, 비대면 안부 전하기,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 지정약국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시, 재택치료자 대상 투약 시작
복약지도 거쳐 5일간 1일 2회

전주지역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을 위한 먹는 치료제가 공급됐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지난 14일 48명분의 치료제가 지정약국에 공급돼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투약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된 먹는 치료제의 투여 대상은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경증·중등증환자(무증상자 제외) 중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이다.

최종 투약 여부는 치료의료기관 의료진의 초기문진 후 병용금지약물 처방이력 등을 확인한 후 결정된다.

먹는 치료제는 투약여부가 결정되고 처방조제가 확인되면 재택치료자에게 당일 배송되며, 치료제는 복약지도를 거



처 연속 5일간 1일 2회 투약하게 된다. 시는 현재 재택치료 중인 105명의 환

자 중 경증환자인 70명과 향후 추가 발생하는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치료의료기관 진료 후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 후 투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건소는 처방 조제된 치료제가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상자 가족 또는 지인의 대리수령, 보건소 자체 전달, 의약품도매업체회전복지회의 협조 등을 통해 맞춤형 배송체계를 구축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14일부터 환자에게 먹는 치료제 투약을 시작함에 따라 의료진은 치료제 사용자침을 준수해 투여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제 활용을 해달라"면서 "환자들은 복용 중인 의약품과 질환알레르기, 간 질환 또는 신장질환, 임신 또는 임신 예정인 경우, 기타 중대한 질환 등을 의료전문가에게 알리고, 파스리비드 복용 시 환자 유의사항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주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도, 오늘부터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재난지원금'

1곳당 8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 신청기간 내달 28일까지

전북도가 17일부터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방역에 앞장선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여개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개소당 8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번 지원금은 2020년 5월 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에게 지급하며, 세부대상은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신청기간은 17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시설주가 신청서 작성과 기본필수 서류인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통장사본을 접수

하면 된다.

신청접수 방법은 시군 여건에 따르며, 전주시·군산시는 온라인(각 시청 홈페이지), 익산시는 시청에서, 그 외 시·군은 시청·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